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이승일이 전하는 놀라운 음악의 메시지

절대음감, 안정적인 활쓰기, 고도의 기교에 극찬 LA 타임즈 그는 이미 완성된 연주자였다. _ 뉴욕 타임즈 그의 연주는 사랑스러운, 그 자체였다. _ 피츠버그 프레스

고난도의 화려한 테크닉과 광범위하고도 심도 깊은 음악세계로 호평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의 앨범이 바흐의 「무반주 파르티타 전곡」을 트랙으로 11월 1일 발매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는 11월 19일 오후 7시 남한산성아트홀에서, 11월 25일 오후 8시 KBS아트홀에서 그의 리사이틀이 열린다. 19일날 그가 연주할 곡은 J.Brahms의 「Sonata No.2 in A Major」, J.S.Bach의 「Partita No.3 in E Major」, F.Mendelssohn의 「String Symphony No.1」 등이다. 또 25일 그가 연주할 곡은 J.S.Bach의 「Partita No.2 in d minor」, F.Schubert의 「Sonata(Duo) in A Major」, A.Vivaldi 「(Four Season) Autumn, Winter」 등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은 바이올린 전설이라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스카섬스키’, ‘펠릭스갈리미얼’, ‘나탄 밀스타인’, ‘조지카스트’, ‘유디스사피로’, ‘예르코스필러’ 등에게 발탁되어 수석제자로서 사사받았다.

줄리아드 음대와 뉴욕메네스 음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의 국제콩쿠르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그는 파가니니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최연소 입상하였다. 워싱턴국제콩쿠르, 바흐 국제콩쿠르 등 세계적 권위의 국제대회에서 대상과 입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 그는 줄리아 클럼프키 장학금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하였다. LA Times, New York

Times, Pittsburgh Post Gazette 등의 외신 등과 한국일보, 경향일보 등 국내 언론에서도 그의 연주력을 조명해왔다. 그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샬럿 심포니, 그랜드 래피드 심포니, 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피츠버그 심포니, 서울시향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또한 뉴욕 카네기홀, 파시데나 아트뮤지엄, 마크태일퍼 포럼(LA 뮤직센터 내)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최근 한국에서는 에릭섬스키와 함께 2016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여 국내 팬들에게 연주를 들려주었다.

영화 타이타닉의 음악감독인 제임스 호너의 제안으로 영화음악을 시작한 바이올리니스트 이승일. 그는 영화 ‘아바타’, ‘캐리비언의 해적’, ‘쥬토피아’, ‘쥬라기 월드’ 등 약 500여편이 넘는 할리우드 영화 음악에 참여하였다. 실제로 우리는 이승일의 연주를 꽤나 많이 접했다. 미국 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 미국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미국 그랜드 래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미국 샬럿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미국 LA 오페라 산타바바라 챔버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로 역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미국 할리우드 ‘모션 픽처스’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 한국 SOLPHEUS KAMARATA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앨범준비 이외에 기획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 그가 들려줄 정통한 클래식 음부터 대중적인 영화음악까지의 다채로운 오케스트라 협연과 바이올린 솔리스트로서의 공연을 기대해본다. ■